

광주,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전국 최저

전문기관 1곳서 아동 32만명 관리

발견 늦어져 또다른 피해 가능성

시설·인력 늘리고 관심 제고 절실

인프라 구축 잘된 전남은 상위권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일반 아동 1000명당 학대피해 아동의 비율로, 이는 광주에 학대피해 아동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아동이 있는데도 그만큼 발견하지 못한 피해 아동이 많다는 뜻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확충과 아동학대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변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피해아동 발견율은 0.37%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0.73%. 일본과 미국은 각각 1.6%·8.8%이다.

반면 전남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1.1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것은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많다는 의미보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종사자 등 피해아동을 찾아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 수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곳(상담원 수 8명)인 광주의 기관당 아동 수는 32만1767명으로, 전국에서 기관당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은 1곳당 18만6638명이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곳(상담원 수 23명)인 전남은 10만797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이 충분히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관련기관 및 종사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설치될 경우 피해 아동과 학대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에서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기관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광주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모두 279건(아동학대 확정건수 118건)으로 전년 대비 242건(※ 100건)보다 37건(15.3%) 증가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확정 사례 118건 중 2.7%인 16건은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으며, 전남은 372건 중 4.9%인 29건이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학대 신고도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모두 804건(광주 252건·전남 552건)으로 이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2.1%인 499건. 신고의무자 신고건수는 37.9%인 305건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직접 지도·양육하는 이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기초수급자 대상

매달 복지종합교육 실시

광주시 동구는 매달 6일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종합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청사 3층 제1회의실에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54명을 대상으로 복지종합교육을 시작한다 이어 매달 6일 청사에서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복지종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 긴급복지제도, 복지분야별 시설과 사업현황 안내 등이다.

구는 복지종합교육을 통해 복지담당자와 신규수급자간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신규 기초수급자들이 올 한 해 별다른 문제 없이 신속하게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종합교육을 하게 됐다"며 "그간 많은 이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관련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어르신 치아건강 유지

1000명에 스케일링 등 추진

광주시 동구는 14일부터 어르신들의 치아건강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잇몸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노인들에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불소를 치아에 직접 발라줌) 등을 실시해 잇몸질환을 억제하고 시린 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구는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상태와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 불소도포·스케일링 또는 세마·불소도포를 구분한 뒤 처치할 계획이다. 구는 또 칫솔질 요령·의치관리법·식이요법·불소용품 이용 등 구강병 예방에 따른 교육과 실습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의료비 경감은 물론 치주병 예방, 치아 결손 예방등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역 내 어르신 3623명을 대상으로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지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북구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 모집

주민생활 불편 사항 모니터링 정책 제안

20일까지...워크숍·선진지 견학 지원도

광주시 북구는 오는 20일까지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다짐을 역할을 할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성친화서포터즈는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속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소통 시책이다.

참여대상은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구는 모집이 완료되면 다음달 초 발대식을 시

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제안 ▲생활불편 사항 모니터링 ▲홍보 등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구는 또 서포터즈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리더 교육, 역할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여성친화서포터즈는 북구가 전국 최고의 여성친화도시로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여성서포터즈는 지난 한해 동안 정책제안 5건, 생활불편 현장 모니터링 50여건 등 주민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델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3억8천만원, 보 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파크 빌라 304호, 34평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 내부 깨끗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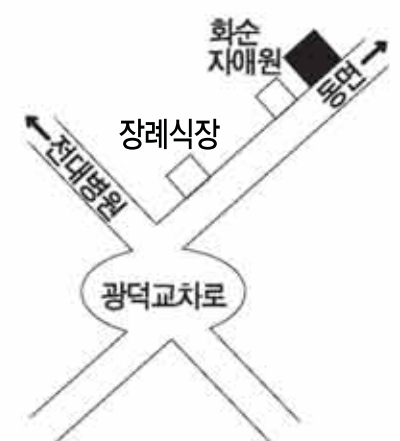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다음 빌라지 301호, 32평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6500만원

문의 H. 010-3605-5000

전남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전원 주택지



■ 광덕 교차로에서 3분거리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 H. 010-3605-5000